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산업전망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산업전망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	7
3. 시사점	13
【부록】 주요 산업별 하반기 경기 전망	17
【HRI 경제 통계】	43

< 요약 >

하반기 산업경기의 모습

- ⑤ **하반기 산업경기, 활주로에 이륙 대기중**(경기저점통과 속 회복진입불확실)
하반기중 대부분 산업경기가 저점을 형성하거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망
특히, IT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장 앞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⑤ (업황 회복 진입) IT제조업, 석유화학산업, 해운업
- ⑤ (경기 저점 형성) 건설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조선업
- ⑤ (불황 국면 지속) 철강산업

하반기 산업경기의 특징

- ① **내수-수출 산업간 편차 없는 고른 경기 회복(이스트 yeast형 회복)**
 -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모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 수출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② **수출산업내 생산재-소비재간 경기 디커플링(decoupling)**
 - 하반기 수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생산재(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소비재에 비해 더딘 회복세 예상
- ③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으로 공공산업 호조**
 -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업이 민간서비스업보다 상대적 경기호조 예상
- ④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경기 활성화**
 -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IT경기 회복, 핵심창조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 등으로,
 - IT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비IT산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 ⑤ **구조불황(structural recession) 산업의 회복 가능성 모색**
 - 경제여건개선으로 해운, 조선, 건설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승,
 - 단, 조선, 건설은 수주산업적 특성으로 본격적 회복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시사점

- 첫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둘째,** 수출산업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수출 환경의 조성
- 셋째,**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
- 넷째,** IT산업의 세계시장 재패와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다섯째,** 구조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 지원

■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업황 회복 진입) IT제조업은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 중심의 수출 호조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의 회복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운업은 제한적이거나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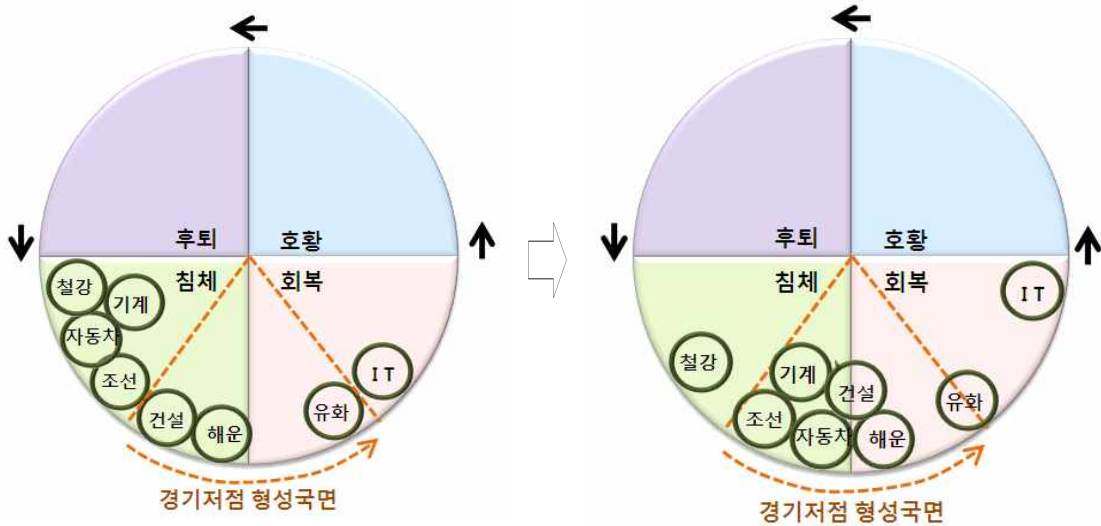
(경기 저점 형성) 하반기중 건설업과 조선업의 업황 모두 경기 저점을 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은 제한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경기 저점 형성후 미약하나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불황 국면 지속) 철강산업은 국내외 철강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 시장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침체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업의 2013년 상·하반기 경기 국면>

(2013년 상반기 실적)

(2013년 하반기 전망)



■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

2013년 하반기 국내 산업경기는 첫째, 내수-수출 산업간 편차 없는 고른 경기 회복 (이스트 yeast형 회복)이 전망된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미약한 경기 상황 개선) 상반기에는 내수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은 편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모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수출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출산업내 생산재-소비재간 경기 디커플링(decoupling)이 전망된다. (소비재산업에 비해 생산재산업 경기의 상대적 부진) 하반기 수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수요 회복의 시차효과와 엔저의 영향으로 생산재(중간재, 자본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으로 공공산업 호조가 전망된다. (공공서비스업 비중 증가 속 민간서비스업의 저성장)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아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사업 확대로 공공서비스업이 민간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IT산업 경기가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앞서갈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과 비IT산업의 경기 격차 발생)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IT경기 회복 가시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 등으로 IT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들보다는 다소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구조불황(structural recession) 산업이 회복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조선, 해운 경기의 경기 저점 형성 및 통과 가능성)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영향으로 해운업, 조선업 및 건설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저점을 형성하거나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선업과 건설업은 대규모 수주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하반기중 회복진입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 시사점

경기 개선의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하반기 산업경기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진작을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기초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된 미시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사업의 조기 재정집행 등을 통해 미약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간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출산업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활용도 제고, 개도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하는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급락을 완화시키기 위해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심리를 제고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주된 수요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비 심리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나아가 관광, 문화, 사업 서비스 등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넷째, IT산업이 세계시장을 재패하고 창조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부침이 심한 IT산업에서 한국이 경쟁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현재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IT분야 인재 육성 등으로 우리 IT산업의 기술력을 세계 최정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한편, IT산업이 국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T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에 제2의 IT붐을 일으켜야 한다.

다섯째, 구조적 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업은 국내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적인 글로벌 수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부가-물량 중심에서 고부가-고기술 중심의 산업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국내 선사들이 단기의 경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국 경제의 전략주력산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1. 개 요

(1) 국내 경제 동향

○ (거시 경제) 내외수 동반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

- (경제성장률)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로 2012년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
- (내수)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 민간소비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 악화로 가계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대 증가율에 그침
 - 설비투자도 1/4분기 -11.9%로 큰 폭의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장기간 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해석
- (외수)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수출입이 감소세를 기록
 - 미국 등 선진국 경기는 물론 중국 등 신흥개도국 경기도 예상보다 부진하여 외수 부문의 회복세가 미약
 - 수출은 2013년 1~5월 기간 중 1.0%로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2.8%를 기록
- (고용 및 물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저물가가 지속되었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용 시장도 외형상 안정
 -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
 -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5월 실업률은 전년동기보다 낮아진 3.0%를 기록하였으나 비경활인구 증가, 고용률 하락 등과 같은 고용의 질적 수준 저하현상이 발견

○ (산업 경기) 대부분 산업 경기의 반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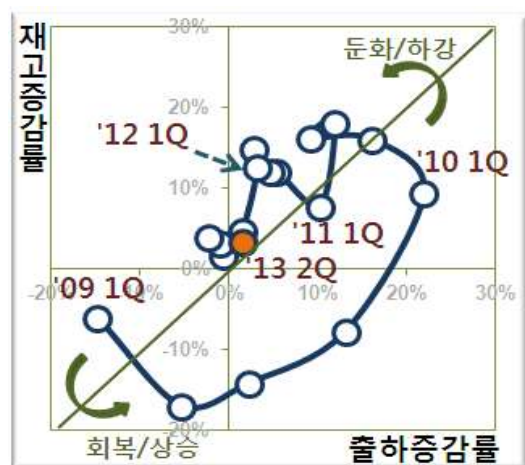
- (전산업 경기 동반 반등) 2013년 상반기 산업 경기는 대부분 반등세를 시현, 건설업 경기도 기성액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 20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 다만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의 침체에 대한 반등인지 경기 회복세로의 전환인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 (제조업 경기 회복 가능성 대두) 제조업은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향후 회복 국면으로의 본격적 진입에는 다소의 시간 소요 예상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플러스로 전환, 회복 기대감이 증대
 - 재고-출하 사이클상 2013년 4월 경기 둔화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로 전환)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에 들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 (건설업 경기 반등 확대) 건설업 생산은 2013년 들어 기성액 기준으로 경기가 상당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주액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

<제조·서비스·건설업 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주: 전년동기비, '13년 2분기는 4월.

<제조업 재고-출하 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주: 전년동기비, '13년 2분기는 4월.

(2) 2013년 대외 경제 전망¹⁾

- IMF는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 ('13년 1월) 3.5%에서 3.3%로 0.2%포인트 하향조정
 - (하향 전망의 배경) 선진국은 회복 지연, 재정건전성 취약, 양적완화 리스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점을 지적함
- (선진국 경제 전망) 유로존 위기의 지속, 미국의 재정불안 등으로 2013년 성장률은 1.2%에 그칠 전망
 - (미국) 시퀘스터(예산자동지출삭감) 등 재정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9%로 하향 조정
 - (유로존)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과 키프로스 등 재정취약국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3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0.2%에서 -0.3%로 하향 조정
 - (일본)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
 - 아베 정부의 무제한 양적완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 엔저에 따른 수출 경기 진작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경제 전망) 신흥국 경기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 경제성장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5.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단 양적 완화로 공급된 유동성이 회수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
 -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2%에서 8.0%로 소폭 하향 조정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 Hopes, Realities, and Risks (April 2013)」 참조.

- (브라질) 인플레이 압력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3.5%에서 0.5%포인트 하락한 3.0%로 수정
- (교역량 전망) 2013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3.6%로 2012년의 2.5%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개도국의 교역 증가세 약화로 지난 전망치(3.8%)보다는 0.2%포인트 하향조정
- 2013년 선진국의 수출량 및 수입량 증가율은 지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견지함
- 그러나 개도국은 자체적인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개도국간 교역 증가세 약화 등으로 수출량 및 수입량 증가율은 지난 전망치보다 하향조정함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11	2012	전망시점별 2013(E)		
			'12.10월	'13.1월	'13.4월
세계 경제성장률	4.0	3.2	3.6	3.5	3.3
선진국	1.6	1.2	1.5	1.4	1.2
미 국	1.8	2.2	2.1	2.0	1.9
유로지역	1.4	△0.6	0.2	△0.2	△0.3
일 본	△0.6	2.0	1.3	1.2	1.6
개발도상국	6.4	5.1	5.6	5.5	5.3
중 국	9.3	7.8	8.2	8.2	8.0
러 시 아	4.3	3.4	3.8	3.7	3.4
브 라 질	2.7	0.9	4.0	3.5	3.0
인 도	7.7	4.0	6.0	5.9	5.7
세계 교역량증가율	6.0	2.5	4.5	3.8	3.6

자료: IMF.

주: 2013년의 각 열 구분은 전망 시점별.

(3)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2)

○ (경제 성장) 2013년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유지, 기저 효과에 의한 내수의 상대적 호전 등으로 상반기 1.8%보다 높은 3.3% 성장률 기록 전망

-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3%로 상반기 추정치인 1.8%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 부문

- 소비는 미약한 회복세 :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고용 시장 개선, 자산 효과,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상반기 1.9%보다 다소 높은 2%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는 증가세 전환 : 하반기 대내외 경기의 회복, 수출 증가, 금리 인한 효과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연간 1.0%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건설투자는 완만한 회복세 :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 개선 가능성이 존재

○ 대외거래

- 수출 경기의 제한적 회복 :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입은 개선되나, 엔저의 여파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개선폭은 제한적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나 수입도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무역수지 270억불, 경상수지 395억불이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13. 6월) "상반기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경제주평 13-27 참조.

○ 기타

- 물가는 점차 상승 :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지연,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될 것임. 하지만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공공요금 인상 등 일부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
- 고용 성장세 지속 : 하반기에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
- 환율은 상승세 : 하반기에는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로 인한 국내 수출 부진 우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리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2013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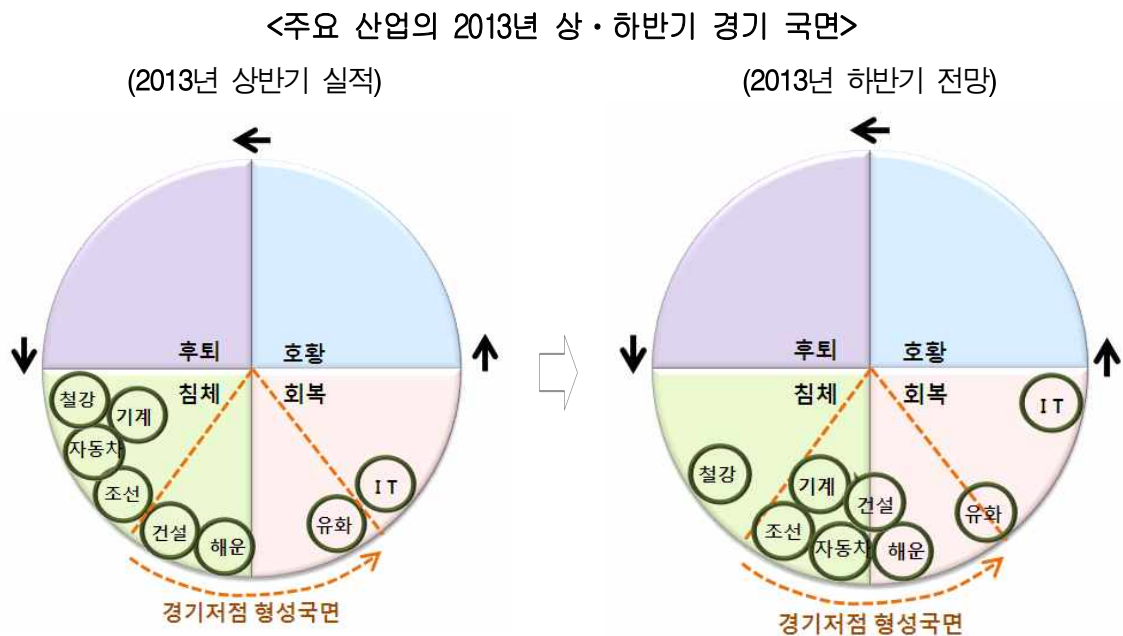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6	1.5	2.0	1.8	3.3	2.6
	민간소비	2.4	1.2	2.2	1.7	1.9	2.3	2.1
	건설투자	△4.7	△1.9	△2.4	△2.2	2.5	2.6	2.5
	설비투자	3.6	2.3	△6.1	△1.9	△7.8	10.5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265	137	294	431	210	185	395
	무역수지	308	109	174	283	140	130	270
	수출 (증가율)	5,552 (19.0)	2,750 (0.5)	2,729 (△3.1)	5,479 (△1.3)	2,778 (1.0)	2,811 (3.0)	5,589 (2.0)
	수입 (증가율)	5,244 (23.3)	2,641 (2.3)	2,555 (△4.0)	5,196 (△0.9)	2,638 (△0.1)	2,681 (4.9)	5,319 (2.4)
소비자물가(평균, %)		4.0	2.7	1.6	2.2	1.3	1.8	1.6
실업률(평균, %)		3.4	3.5	2.9	3.2	3.4	3.2	3.3
원/달러환율(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1	1,110	1,10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13. 6월) "상반기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경제주평 13-27.

2. 하반기 산업경기의 특징

(1)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³⁾

- (업황 회복 진입) IT제조업은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 중심의 수출 호조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의 회복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운업은 제한적이거나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경기 저점 형성) 하반기중 건설업(기성액기준)⁴⁾과 조선업의 업황 모두 경기 저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은 제한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경기 저점 형성후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존재
- (불황 국면 지속) 철강산업은 국내외 철강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 시장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침체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



3) 자세한 산업별 경기 전망은 “【부록】 주요 산업별 하반기 경기 전망” 을 참조.

4) 하반기 건설업은 거시지표의 건설투자에 대응되는 기성액 기준으로는 경기저점 형성국면이 예상되나, 미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수주액 기준으로는 침체국면 지속이 전망.

(2)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

① 내수-수출 산업간 편차 없는 고른 경기 회복(이스트 yeast형 회복)⁵⁾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미약한 경기 상황 개선

○ 상반기에는 내수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은 편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모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수출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제조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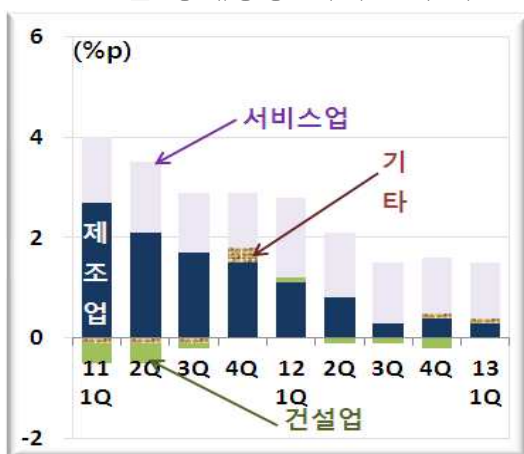
· 2013년 1/4분기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0.3%p로 서비스업의 1.1%p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 그러나 하반기 이후 수출산업의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는 빠르게 진전되어 수출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OECD 6월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수출 2013년 수출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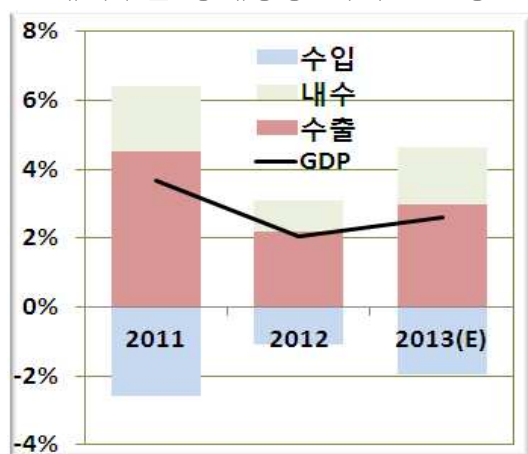
· 반면 내수 산업은 고용시장의 경기후행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질구매력 확충이 어려워 보여 제조업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내외수별 경제성장 기여도 전망>



자료: OECD 전망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5) Harberger(1998)의 버섯형(mushroom)과 효모형(yeast) 경제성장경로에서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효모형은 리딩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를, 버섯형은 경제활력을 제공하는 리딩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Harberger의 이론은 경기회복이 아닌 경제성장애 대한 이론임.

② 수출산업내 생산재-소비재간 경기 디커플링(decoupling)

: 소비재산업에 비해 생산재산업 경기의 상대적 부진

○ 하반기 수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수요 회복의 시차효과와 엔저의 영향으로 생산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에 들어 중간재와 자본재의 생산재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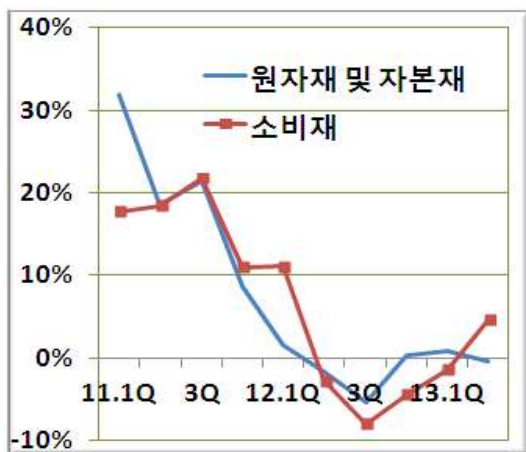
· 2/4분기 원자재(중간재)와 자본재의 생산재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소비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기록

- 하반기에도 엔저의 생산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집중,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의한 국제분업구조상의 순차적인 수출 파급 등으로 생산재 수출 경기가 다소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철강, 기계, 유화, 반도체·FDP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

· 또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상에서 보면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나 설비의 과잉, 국제 분업구조 경로에서의 경기회복 시차 효과 등으로 소비재에 비해 생산재 수출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

<생산재 및 소비재 수출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전년동기, '13년 2분기는 4~5월 평균.

<엔/달러 연평균 100엔(20%절하)시 수출증감률 전망>

주요 수출 품목		수출증감률
총수출입		△2.6%
중간재	철 강	△11.9%
	기 계	△1.7%
	석유화학	△0.2%
	반도체·FDP	△4.9%
소비재	휴대폰·컴퓨터	5.7%
	가 전	5.6%
	자동차	1.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증감률은 2012년 대비.

③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으로 공공산업 호조

: 공공서비스업 비중 증가 속 민간서비스업의 저성장

○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아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사업 확대로 공공서비스업이 민간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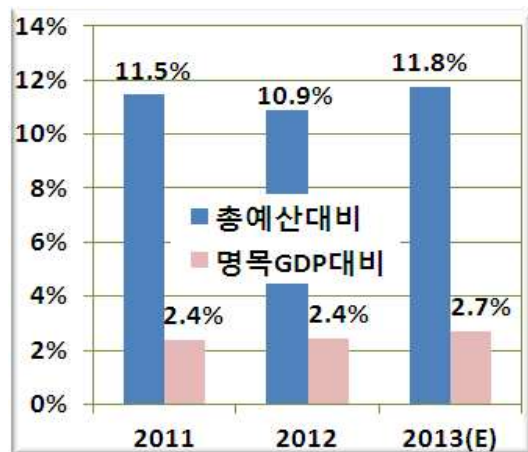
- 경기 회복 미약,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중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호조가 전망6)
 - 공공서비스 부가가치 생산증가율은 2012년 4%대에서 2013년 1/4분기 3.7%를 기록
 - 민간서비스 생산증가율은 2012년 2% 내외에서 올해 1/4분기 1.5%에 그침
- 정부의 보건·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공공서비스업 경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보건·사회복지 예산액/총예산 비중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11.8%로 증가가 예상되며,
 - 보건·사회복지 예산액/명목 GDP 비율도 같은 기간 2.4%에서 2.7%로 상승할 것이 전망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생산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 공공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예산의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 1) 2013년 명목GDP는 현경연 전망 기준
2)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준.

6) 1/4분기 공공서비스 부가가치생산액은 약 26조 원으로 민간서비스 115조 원의 약 2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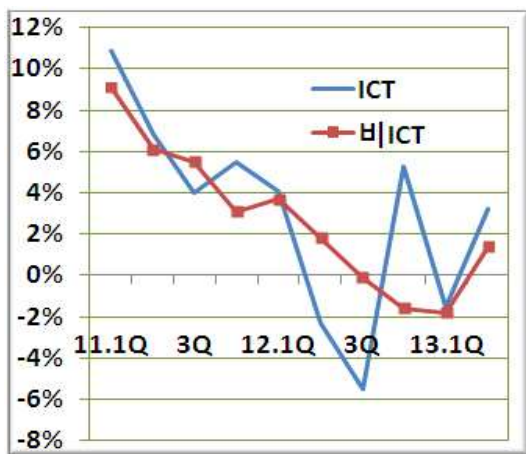
④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경기 활성화

: IT산업과 비IT산업의 경기 격차 발생

○ 세계 IT경기 회복 가시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 등으로 IT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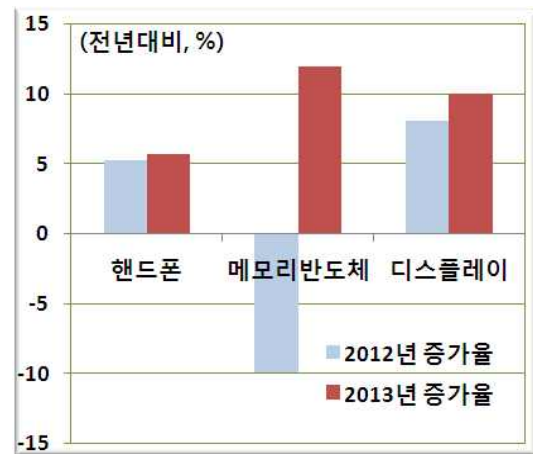
- 2012년 하반기 이후 IT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비IT산업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에서의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2년 상반기 경제성장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 33%, 2013년 1분기에 40%로 증가
 - IT제조업의 생산 증가율도 2012년 4/4분기 이후 비IT제조업을 상회
- 하반기에도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가능성, 정부의 ICT투자 확대정책 등으로 IT산업 경기가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글로벌 IT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주요 IT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새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그 핵심산업인 IT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도 산업경기 회복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ICT 및 비ICT 생산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요 IT제품 세계시장규모증가율 전망>



자료: 핸드폰-SA, 반도체-iSuppli, 디스플레이-DisplaySearch.

7) 국민계정상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통신업 부가가치의 경제성장 기여도임.

⑤ 구조불황(structural recession) 산업의 회복가능성 모색

: 건설, 조선, 해운 경기의 회복 가능성 증대

○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해운업,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들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수요의 점진적 증가로 경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

- 2013년에 들어 건설, 조선, 해운업 생산증가율이 모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조선, 해운업의 생산(생산지수)은 작년 하반기 경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업도 올해 들어 생산(기성액)이 플러스로 전환

- 이들 산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수요의 점진적 증가로 경기 저점을 형성하거나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업황 개선 속도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 해운업은 연말로 갈수록 개도국 중심의 물동량 수요 회복으로 제한적이거나 회복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조선업과 건설업은 대규모 수주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하반기중 회복진입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특히 건설업의 중장기 경기 선행지표인 수주액도 감소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건설·조선·해운업 생산지수 및 기성액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주: 조선/해운 생산증가율, 건설 기성액증가율.

<건설·조선·해운업 수주 및 용선지수 증가율 전망>



자료: 2013년은 연구원 전망치.

3. 시사점

첫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진작을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기초적 일관성 유지와 미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즉, 저금리 유지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 갈수 있는 수단인 정책금융 활용 등 금융정책을 재정정책 기초에 맞추어 운영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 사업의 조기 재정집행 등을 통해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간 구조를 선택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재정 집행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추진도 고려

둘째, 수출산업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활용도 제고, 개도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하는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이 필요함
 -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EU FTA 및 한-미 FTA를 통해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임
 - 또한 상대적으로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시스템 도입과 기업들의 인증심사를 위한 지원 및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함
 - 또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 시장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의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최근의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급락을 완화시키기 위해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급격한 엔저 현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운전 자금 부족이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필요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이 필요

셋째,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기업가 정신 고취, 창업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기업투자 심리를 제고해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침체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창업 단지 조성 및 기술 창업 인프라를 확대 제공하고, 창업 실패시 이를 구제하는 창업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야 할 것임
- 서비스산업의 주된 수요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비 심리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국민행복기금의 추진 속도 제고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추진하여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심리를 회복을 도모
- 또한 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요구
- 한편, 관광, 문화, 사업 서비스 등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의 진작 노력이 요구됨

넷째, IT산업이 세계시장을 재패하고 창조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시장 선도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국들과의 제품 차별화 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부침이 심한 IT산업에서 한국이 경쟁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현재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임
- 이를 위해서는 IT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IT분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우리 IT산업의 기술력을 세계 최정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 한편, IT산업이 국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 내 융합 엔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ICT 기기부문은 전체 창조산업 부가가치의 14.7%, 취업자 수의 10.1%를 차지하는 등 SW 등 정보관련 산업, R&D와 함께 창조 산업의 3대 핵심 산업임⁸⁾
 - 이러한 IT산업의 성장력 강화시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제2의 IT붐을 일으켜야 할 것임

다섯째, 구조적 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우선 장기 불황 국면에 있는 건설업은 산업합리화를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부동산 시장 대책은 그 목적으로 경기 부양에 두지 말고 산업 내 경쟁력 있는 건설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 구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업의 영세성과 후진성 극복을 통한 산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산업 정책이 요구됨
- 구조적인 글로벌 수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고기술 중심의 산업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
 - 조선 업체들의 산업합리화는 필요한 상황이나 과거 70년대의 일본과 같이 기술 개발에도 소홀히 할 경우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친환경-고효율 선박 등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등 고부가-고기술 중

8) 현대경제연구원(2013),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경제주평 13-25 참조.

심의 산업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해운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 기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현재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외국 메이저 선사들을 중심으로 선대의 대형화 경쟁과 얼라이언스를 통해 치킨 게임이 진행중
 - 이에 국내 Big4 선사들중 대한해운과 STX팬오션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해운업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향후 세계 해운 경기 회복시 국내 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
 - 이러한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 P-CBO 발행 및 운임 유동화 증권 발행, 선박 담보 대출시 LTV 적용 유예 등의 다양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정부 화물 운송시 국내 해운사 우선 배정 제도 및 적정 운임 보장 정책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해 주어야 함
 - 한편, 재무구조 평가시 선박금융은 제외하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 채권 발행을 지원해 주어야 함
 - 나아가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 선사들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HRI**

【부록】 주요 산업별 하반기 경기 전망

① 조선업	18
② 해운업	21
③ 기계산업	24
④ 철강산업	27
⑤ 석유화학산업	30
⑥ 자동차산업	33
⑦ IT제조업	36
⑧ 건설업	39

① 조선업

조선업은 상반기 침체 국면을 지나 하반기중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내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

- (생산) 2013년 상반기 조선업은 지표상 최악은 벗어나는 회복 징후가 관찰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생산지수는 2012년 이후 증가세가 완만하게 높아지는 모습
- 최근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6.4%로 2013년 1/4분기 7.7%, 4월에 10.7%로 상승중

- (수주) 현업 체감지표인 신규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액으로는 감소세로 아직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조선사들의 2013년 1분기 신규수주규모는 296만 CGT⁹⁾로 2012년 1분기의 210만 CGT보다 41% 증가
- 반면 드릴쉽 1척, 해양플랜트 1기, LNG선 8척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량이 적어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1.1% 감소한 72억 6천만 달러 규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국내 조선사의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클락슨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기준, 2013년 2분기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기준

2) 수주잔량 및 신규수주량은 국내 모든 조선사 실적을 포함.

9)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3년 하반기 전망) 건조량은 감소세, 수주량과 수출은 보합세 전망

- (수주량) 고효율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수주 증가 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선박 수요 회복으로 연결될 지는 불확실
 - 저공해, 고효율 선박에 대한 대체수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증가로 연결되기 시작
 - 2013년 1/4분기 전세계 발주량이 660만 CGT로 전년동기대비의 580만 CGT보다 13.8%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
- (건조량)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 경기의 회복세 미약으로 선박 건조량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대형 조선사들의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과 중소 조선소들의 위기는 선박금융을 위축시켜 전반적으로 선박건조 활동을 크게 제한
 - 전세계적으로 선박 건조량은 2013년 1분기 957만 CGT로 전년동기 1,351만 CGT보다 29.2% 감소
- (수출) 2010년 이후 낮아진 선가로 발주된 선박이 건조·수출됨에 따라 뚜렷한 수출 상승세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13년 1/4분기 선박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2억 달러보다 26% 감소한 89억 9,000만 달러 기록
 - 향후 인도되는 수출 선박은 2010년 전후에 계약된 저가수주 물량이 중심이기 때문에 금액상 2012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조선업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신규수주량 (만 CGT)	1,163 (43%)	717 (△38%)	650 (△9%)	720 (0%)
건조량 (만 CGT)	1,356 (7%)	1,172 (△13%)	1,300 (11%)	880 (△25%)
수출규모 (억 달러)	566 (15%)	397 (△29%)	400 (0%)	400 (0%)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사업 포트폴리오의 단순화, 가격협상력 약화 그리고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기술자립 필요성 증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사업 포트폴리오의 단순화)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주력사업이 개편됨으로써 이들 선박 수주실적이 경영실적을 좌우
 - 2013년 1/4분기 전세계에서 발주된 해양플랜트 1기, LNG선 8척 그리고 드릴쉽 1척을 국내조선소가 전량 수주
 - 그러나 2012년 1/4분기의 해양플랜트 물량보다는 감소(금액기준 31.8% 감소)
 - 선가가 아직 낮은 상황에서 소수의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선사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 (가격협상력 약화) 계속되는 해운 경기의 미약한 회복으로 소수 대형 선사들만이 선박 발주에 나서는 수요독점 현상으로 향후 가격협상력 약화가 우려
 - 2013년 5월말 컨테이너 선복량 기준으로 각각 세계 7위, 18위 그리고 31위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리고 STX팬오션은 2012년 이후 선박발주가 전무
 - 반면 세계 4위인 대만의 에버그린은 2010년 100척을 새롭게 발주했고 세계 9위인 중국의 CSCL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5척을 한국에서 발주했으며, 세계 1위인 머스크 또한 대형 스마트쉽을 중심으로 발주
 - 소수의 대형 해운선사들 중심으로 선박 발주에 나서면서 신조선박 시장에서 수요독점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가격협상력 약화가능성이 커짐
 - (해양플랜트 부문의 기술자립 필요성 증대) 해양플랜트부문에서 기술자립을 통해 경영과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일반선박 건조에 있어 기술자립도는 9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양플랜트에 있어서는 20% 정도에 불과
 - 20억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1척을 수주할 경우 외국 엔지니어링회사에 설계비만으로 1~2억 달러를 지불해야하는 상황
 - 이에 따라 주요 조선 기업들이 해양플랜트 기술자립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실적 부진으로 크게 가시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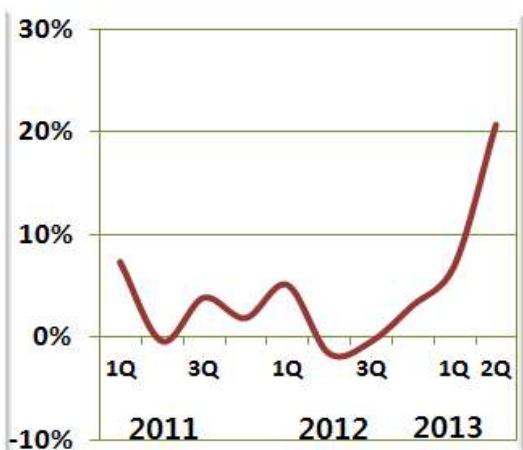
② 해운업

세계 경제와 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해운업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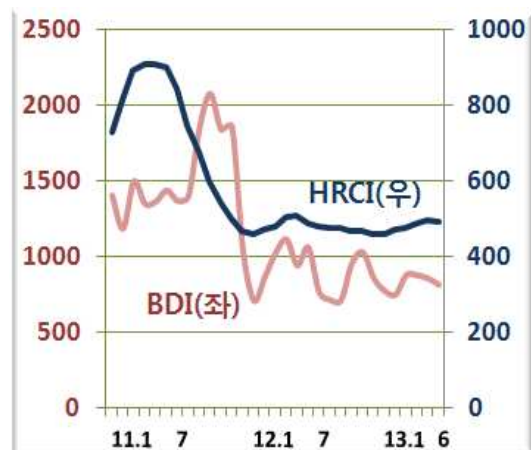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선진국 경기 침체로 해운업 경기 부진이 지속

- (생산지수)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분기 연속 개선되는 추세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2년 4/4분기 3.2%, 2013년 1/4분기 7.0%, 2013년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0.8%를 기록
 - 다만, 이는 전년동기의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해운시황) 2013년 상반기 컨테이너와 벌크 부문 모두 운임 약세가 지속 중
 - 컨테이너 HRCI(용선지수)는 2012년부터 2013년 5월말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여간 400 후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 중
 - 벌크선 BDI(용선지수)는 연초 소폭의 상승 이후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주요 해운업 용선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3) 해운업 용선지수는 월평균 기준

- (2013년 하반기 전망) 세계 경제와 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해운업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컨테이너선) 시장 공급 누적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나 세계 경제가 미약하나마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업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컨테이너 부문의 과잉 공급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 선진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 개도국의 상대적 고성장 지속 등으로 업황의 점진적 개선을 기대
 - (벌크선) 신흥국 인프라 수요의 물동량 견인이 예상되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중 경기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경제 부흥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지속되면서 벌크선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의 제한적 성장, 벌크선 시장 내의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은 불확실
 - (유조선)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워 업황 부진이 전망
 -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그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원유 물동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유조선 시장도 역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업황 부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주요 해운지수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컨테이너선 [HRCI (1997=1,000)]	763 (38%)	447 (△37%)	550 (15%)	500 (5%)
벌크선 [BDI (1985=1,000)]	1,549 (△44%)	920 (△41%)	980 (7%)	980 (7%)
유조선 [AG-동아시아(WS)]	53 (△24%)	47 (△11%)	52 (10%)	45 (△5%)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해운지수는 기간 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선사 간 공조, 상시적 비용 절감 노력, 사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선사 간 공조) 운임 정상화 및 효율적 선대 운영을 위한 선사 간 공조가 더욱 확대될 조짐
 - 운임 정상화 및 효율적 선대 운영을 위한 선사 간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
 - 특히 최근 컨테이너 업계 1,2,3위인 Maersk와 MSC, CMA CGM이 해운동맹 'P3'를 구축하면서 선사 간 공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상시적 비용 절감 노력) 한편 저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상시적 비용절감이 선사 과제로 부상할 전망
 - 선진국의 침체 장기화 및 개도국의 성장세 둔화로 전세계적인 저성장세 지속이 전망됨에 따라 단기간 내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선대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 선사 간 공조를 통한 규모의 경제 제고 등 저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상시적 비용절감이 자리 잡을 전망
 - (사업 구조 개편) 경기 변동 대응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운 서비스 확대, 노선 재편 등 광범위한 사업 구조 개편이 화두가 될 것
 - 해운 서비스 확대 : 경기 변동에 민감한 운항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포워딩, 선박 관리, 항만 사업 등 고부가가치 해운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대
 - 노선 재편: 선진 시장 침체 및 개도국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전통 기간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또는 개도국 간 신규 노선 발굴이 요구
 - 선대 구성 다양화 : 해양플랜트, 자원운송 시장 등 신규 수송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대 구성 다양화가 요구
 - 내부 조직 개편 : 선진국, 신흥국 등 전통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 발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내부 조직 개편이 본격화

③ 기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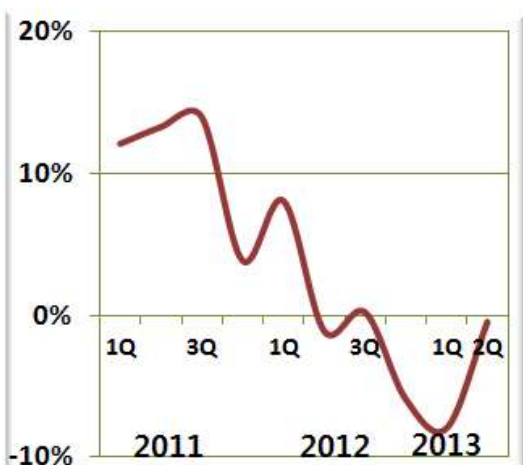
국내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생산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 수요의 제약,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대내외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으로 기계산업 생산 부진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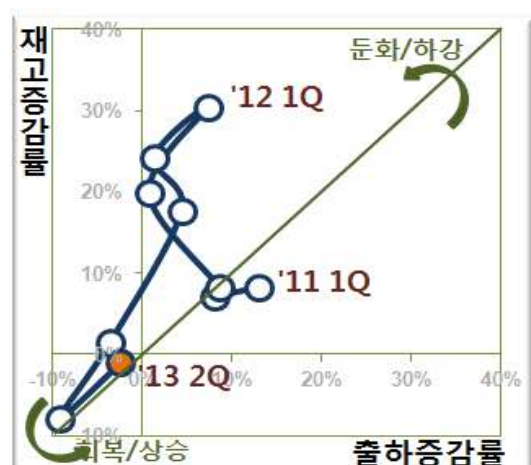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상반기 기계 생산 감소폭 확대
 - 국내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기계산업의 생산 증감률은 2012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습
 -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이 동시에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재고-출하 사이클 상 2013년 1/4분기 경기 불황 국면으로 진입
- (수출입) 상반기 기계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 중국 성장세 둔화, 엔저 영향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 (2013년 하반기 전망) 국내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생산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 수요의 제약, 엔저에 따른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생산)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투자 수요가 제약될 것으로 보여 생산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및 엔저 영향 등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국내 수출 제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기계 수요는 제한적인 수준이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수출입) 해외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엔저에 따른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중국의 철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대 및 재고 소진, 미국 경기 회복 등으로 해외 기계 수요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 엔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산 기계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큰 폭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국내 경기회복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기계 수입 역시 증가폭이 제한적일 전망

<기계산업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생 산 (조원)	103 (11%)	106 (4%)	116 (9%)	111 (5%)
수 출 (억불)	432 (26%)	432 (0%)	492 (14%)	456 (5%)
수 입 (억불)	360 (4%)	347 (△4%)	385 (11%)	357 (3%)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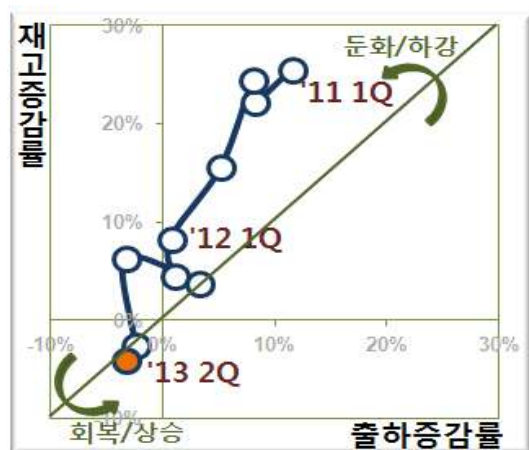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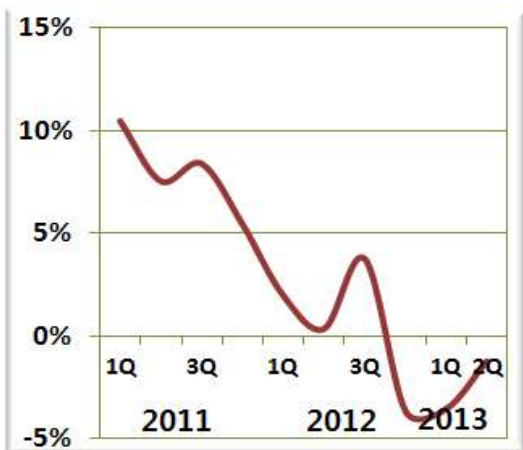
- (주요 현안)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일본 제품과 경쟁 심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중국의 기계 국산화 확대, 엔저에 따른 일본 제품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기계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증대
 - 중국의 기계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중저기술 제품 위주의 국산화가 급격히 진행
 - 현재 국내 기계산업의 최대 수출 대상인 중국 시장에서 자국 제품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엔저에 수혜를 입는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ASEAN, GCC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제품과 경쟁 심화) 이미 기술경쟁력이 높은 일본산 제품이 엔저로 인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은 높은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고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다소 약화
 - 그러나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산 기계 제품은 높은 품질과 더불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
 -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 제품과 국산 기계 제품의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 (기계산업 서비스화 본격화) 기계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계산업 내 서비스 부문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
 - 향후 국내 기계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적 기계 강국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고기계 거래 및 기계금융 활성화 등의 산업의 서비스 부문 확대가 필요
 - 정부의 기존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스템, 기계설비 서비스 단지 등 서비스 부문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④ 철강산업

국내외 철강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 시장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철강산업은 경기침체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경기 불황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 역시 부진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고·출하 사이클 상에서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
 - 철강 생산 증감률은 2012년 3/4분기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
 - 다만, 재고-출하 사이클상 경기 부진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 상반기 철강 수출은 금액 및 물량 모두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
 - 2013년 1/4분기 수출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13.3% 감소¹⁰⁾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10) 철광석 및 원료탄을 제외한 철강재, 주철류, 원부자재 기준, 한국철강협회.

○ (2013년 하반기 전망) 대내외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문제 지속 등으로 하반기 중 침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수요 부진) 전방 산업의 침체, 동북아 철강재 시장의 공급 과잉 지속 등에 따라 내수 및 수출의 가시적인 증가는 쉽지 않을 전망

- 조선 산업의 후판 수요 부진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 산업의 수요 역시 증가하지 못할 경우 내수 증가는 불투명
- 중국 철강 수요의 둔화와 함께 동북아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 및 엔화 약세 등은 우리 철강 수출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 (생산 정체 및 수입 감소) 수요 부진은 생산 증대의 제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공급량 역시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철강 업체들이 수요 증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생산량 증대 결정은 어려울 예상
- 수입 역시 감소가 예상되나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 및 일본산 철강재의 기본적인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편

<철강산업 전망>

(단위: 만 톤)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총수요	8,550 (11%)	8,460 (△1%)	8,740 (3%)	8,560 (1%)
내수	5,640 (8%)	5,410 (△4%)	5,550 (3%)	5,440 (0%)
수출	2,910 (17%)	3,050 (5%)	3,190 (4%)	3,120 (2%)
총공급	9,540 (5%)	9,360 (△2%)	9,630 (3%)	9,370 (0%)
생산	7,230 (10%)	7,290 (1%)	7,620 (4%)	7,360 (1%)
수입	2,310 (△8%)	2,070 (△10%)	2,010 (△3%)	2,010 (△3%)

자료: 2011년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

- (주요 현안) 동북아 시장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확대, 채산성 확보의 중요성 증대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동북아 시장의 공급 과잉)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철강 업체들의 생산량 조정이 쉽지 않음에 따라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한국 철강 산업은 내수 증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2013년 하반기에도 생산 시설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생산량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국은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의 환경 규제 및 신규 설비 구축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량 조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
 - 일본 업체들은 엔저에 따른 원료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와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이 불가피
 - (보호무역주의 확대) 철강 제품의 주요 수요국 사이에 보호무역주가 확산되면서 수출 증대에 어려움이 가중
 -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역시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밖에 호주가 한국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을 관정하는 등 글로벌 철강 시장에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모습
 -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수출 가격의 인하가 어려워지면서 업체들은 수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과제로 부상
 - (채산성 확보 중요성 증대) 철강 시장의 주도권이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생산 규모보다는 채산성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
 -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는 시기에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한 대량 생산 및 저마진 전략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
 - 하지만 제품 및 원재료 공급의 증대와 철강재 최종 수요의 위축으로 제품과 원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최종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
 - 향후 수요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경우 이미 대규모 시설 투자로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진 철강 업체들에게 채산성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

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업황은 하반기에도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본격적인 경기 상승기에 접어들지는 못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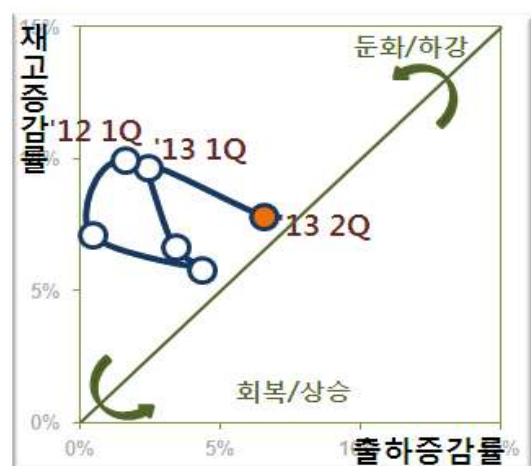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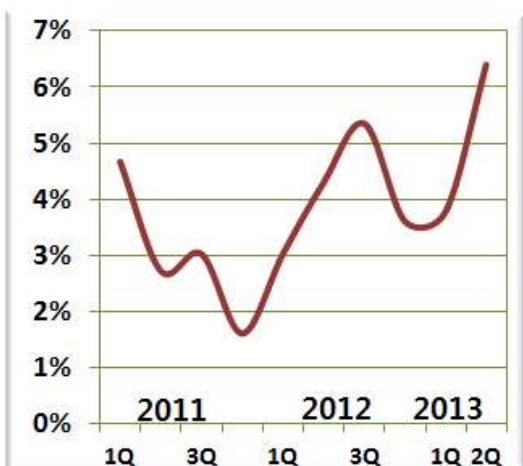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의 부진에서 소폭 회복

- (생산 및 재고·출하) 2013년 상반기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

- 생산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2013년 1/4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여 3.8% 기록하였고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율 달성
- 2013년 1/4분기 출하 증가율(1.5%)은 소폭 상승하였고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하여 회복세 지속

- (수출) 석유화학제품의 1~4월 중 수출액은 2012년 하반기의 수출 부진세에서 회복하여 전년동기대비 9.2%의 증가율 달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 (2013년 하반기 전망) 수출과 내수 경기 모두 상반기에 이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지는 못할 전망
 - (수출)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非에틸렌 제품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자급률 진전, 중동산 저가제품의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는 수출을 제약
 - 그러나 중국 내에서 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스트림¹¹⁾ 제품과 중동의 생산 비중이 낮은 非에틸렌 계열 제품은 수출 증가세 유지
 - (내수) 내수 부문 증가세는 국내 전방 산업들의 부진 등으로 인해 미약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하여 하반기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IT 등 일부 전방 산업의 경기가 양호하여 석유화학제품 내수 진작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생 산 (만톤)	2,137 (0%)	2,142 (0%)	2,227 (4%)	2,180 (2%)
수 출 (만톤)	1,163 (△2%)	1,174 (1%)	1,221 (4%)	1,200 (2%)
수 입 (만톤)	94 (11%)	97 (3%)	104 (7%)	100 (3%)
내 수 (만톤)	1,056 (3%)	1,061 (0%)	1,103 (4%)	1,080 (2%)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11) 업스트림(upstream)은 나프타를 이용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드는 공정이고, 다운스트림(downstream)은 기초유분을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주요 현안) 원료 다양화, 신기술 혁신, 질적 성장 노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원료 다양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석유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중동의 값싼 천연가스, 모래와 진흙이 굳은 암석층에서 생산되는 셰일 가스나 타이트 오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 증가가 예상
-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석유 대신 값싼 석탄을 활용하여 석탄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비중도 증가

- (신기술 혁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혁신 기술의 발전과 바이오화학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의 등장

- 셰일 가스나 타이트 오일 채굴 기술, 석탄을 석유화 혹은 액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원료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
- 바이오 화학제품은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성장이 이슈화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두

- (질적 성장 노력)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모색 등의 질적 성장 방안 강구

- 석유화학기업은 기존의 석유화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등 IT소재 제품, 친환경 타이어용 고무 등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
-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동, 북미 지역에 현지 진출하여 생산능력 확충
- 한편 후방산업인 정유업체와의 M&A나 기술 협력을 통해 범위의 경제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⑥ 자동차산업

자동차 산업은 유럽 시장의 침체,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 부담 지속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 (2013년 상반기 동향)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수 및 수출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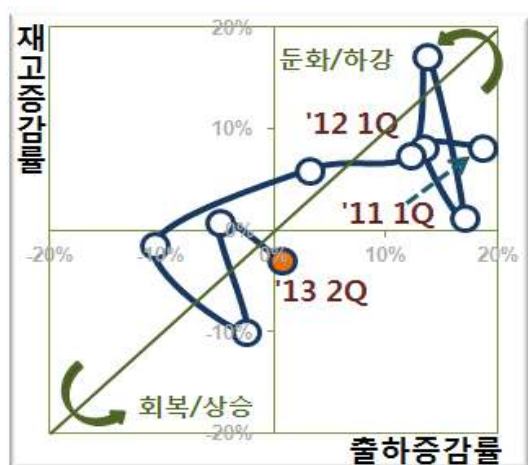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생산은 감소세 지속

- 2013년 1~4월 자동차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1% 하락하였으며, 내수판매량은 44만대로 1.6% 감소
- 재고-출하 사이클상으로 상반기에 들어 경기 부진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 유럽 시장 위축, 원고-엔저 현상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

- 2013년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 물량기준으로는 7.8% 감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 (2013년 하반기 전망) 해외수요 회복의 제약,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 시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제한적인 회복 전망
 - (수출 부진 지속) 미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를 상쇄시키는 유럽 시장의 침체와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 북미시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EU 지역의 경기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출물량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원고-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해외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점유율 하락 우려
 - (제한적인 내수 회복)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내 시장의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 자동차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제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고용 부진, 가계 부채 문제 지속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국산차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자동차산업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생산 (만 대)	466 (9%)	456 (△2%)	465 (2%)	459 (1%)
내수 (만 대)	147 (1%)	141 (△4%)	147 (4%)	142 (1%)
수출 (만 대)	315 (14%)	317 (1%)	323 (2%)	317 (0%)
수입 (만 대)	11 (16%)	13 (25%)	15 (15%)	15 (15%)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빅3의 부상, 차량 경량화, 실용적 소비 트렌드 확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빅3의 부상) 일본 아베 정부의 적극적 엔저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 빅3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
 - 2012년 4/4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엔화 약세 기조는 2013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원고-엔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빅3(도요타, 혼다, 닛산)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산 자동차의 수출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
 - (차량 경량화) 고유가와 불경기 지속으로 연비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차량 경량화를 위한 첨단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알루미늄 합금 등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차체의 무게를 감량시키기 위한 경쟁이 예상
 - 완성차 업체 간 차량 경량화 경쟁이 강화되면서 부품, 소재 공급 업체들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실용적 소비 트렌드 확산) 비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실용적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고연비, 저가격, 기능성 중시 차량의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가격, 연비, 보험료 등 자동차의 총보유비용(TCO)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여 엔진의 다운사이징, 차급의 소형화가 확대
 - 온라인 정보 검색을 통해 가격, 유지비용 등을 비교하고 전문가와 사용자의 리뷰를 참고하는 구매자 증가
 - 반면, 고급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단순 신차효과 등의 영향력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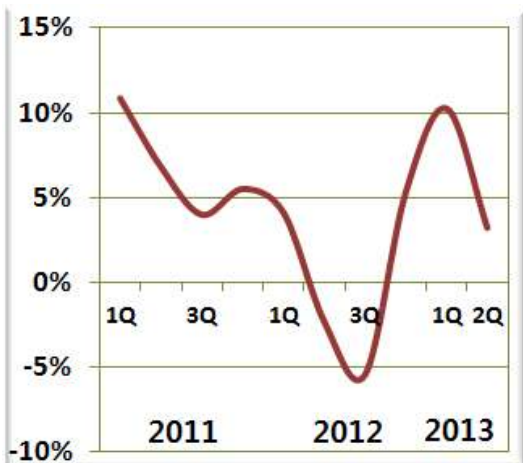
⑦ IT제조업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가 IT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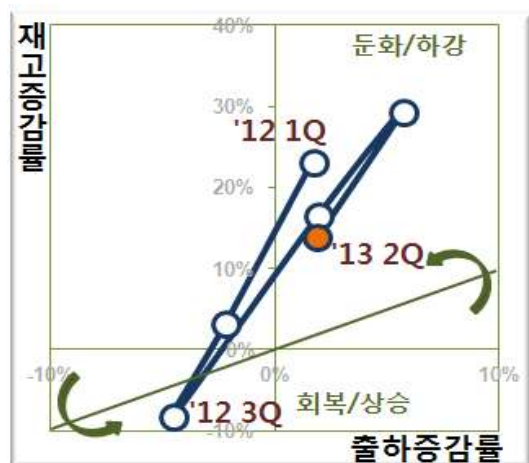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고-출하 사이클 상 여전히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생산증감률은 2012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2013년 2/4분기 들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재고-출하 사이클 상 여전히 경기 부진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하증가율은 미약한데 재고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
- (부문별 경기) 휴대폰 및 부품품과 메모리 반도체가 IT 부문의 수출을 견인
 - 휴대폰은 선진·신흥 시장 모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품 수출도 증가
 - 시스템 반도체는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개선에 인한 단가 상승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호조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2분기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

○ (2013년 하반기 전망)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가 IT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 IT 시장의 전반적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ASEAN 등 신흥 시장의 수출 호조세 또한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그동안 위축되었던 선진국 시장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증

* 미국 수출 증가율 : ('11년) △4.3% → ('12년) △21.3% → ('13년 1~4월) 3.6%

EU 수출 증가율 : ('11년) △22.9% → ('12년) △6.7% → ('13년 1~4월) 16.6%

· 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저 및 달러 약세,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내 현지 기업들의 고성장 등은 IT제조업의 수출 경쟁력과 관련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주요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디스플레이 패널 및 스마트 기기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도체 : 반도체 시장의 과점화, 설비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모바일 기기의 견조한 수요 등 수급 조건 개선으로 업황 회복세가 지속될 예상

· 디스플레이 패널 : TV의 대형화·고급화, 태블릿 PC의 출하량 증가에 따라 대형·고해상도 패널의 수요 성장이 예상

· 스마트 기기 :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이의 5~7인치 패블릿 제품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IT제조업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생산 (조 원)	306 (4%)	307 (1%)	317 (3%)	320 (4%)
수출 (억 달러)	1,566 (2%)	1,552 (△1%)	1,614 (4%)	1,661 (7%)
수입 (억 달러)	815 (8%)	779 (△4%)	818 (5%)	826 (6%)

자료: 실적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제조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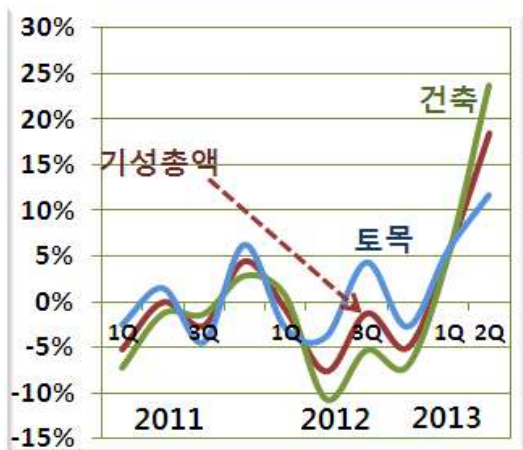
- (주요 현안) UX 경쟁 격화,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의 개막 등이 I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UX 경쟁 격화) 스마트폰 제품 경쟁력이 HW에서 SW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UX 기능이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 전망
 -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성능과 디자인이 상향평준화되고 추가적인 하드웨어 혁신을 통한 프리미엄 창출이 한계에 이르면서,
 - 스마트폰 제품 경쟁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을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
 - 첨단 기술을 넘어서 보다 심층적인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UX 개발이 향후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화) 선진국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저가 제품을 앞세운 경쟁 기업들의 반격이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선진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
 -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프리미엄급 중심의 제품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연내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저가의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기반으로 신흥국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의 개막) 제품 휴대성을 뛰어넘어 착용성을 동반한 차세대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이어 차세대 IT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시대가 하반기부터 개막
 - 구글은 2013년 4월 이미 구글 글래스를 개발자버전으로 배포했으며, 애플, 삼성 등의 스마트워치 역시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기존 모바일 디바이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UX, 효용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여부가 향후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⑧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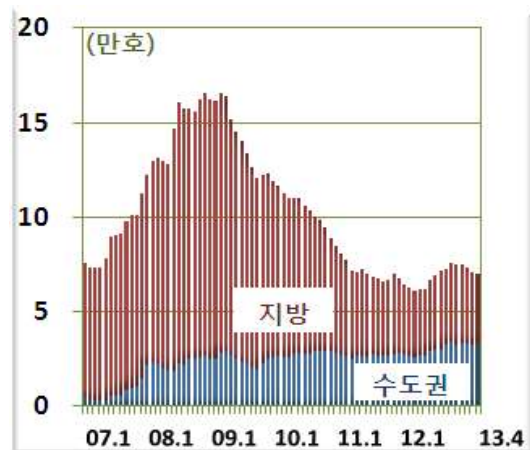
공공·토목 부문 경기는 SOC 투자 증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건축 부문은 주택수요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상반기 경기 동향) 기성액 기준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주액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
- (건설기성 및 수주) 2013년 들어 건축·토목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경기선행지표인 수주액은 큰 폭의 침체를 기록
 - 건설기성액¹²⁾ 증감률은 2012년 마이너스에서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3%, 4월 18.4%로 증가폭이 확대
 - 건설수주액¹³⁾ 증감률은 2012년 -8.9%에서 2013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1.2%, 4월 -20.6%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주택시장) 미분양주택수는 2012년말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지방 미분양 물량의 감소에 기인
 -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2년 12월 7.5만여호에서 2013년 4월 현재 7만여호로 감소
 -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3만 3,000여 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 물량은 같은 기간 4만 2,000여 호에서 3만 7,000여 호로 감소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미분양주택수>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12)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통계청).
 13) 건설수주액은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항 공사기간으로 경기 선행기간을 단정할 수 없으나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

○ (2013년 하반기 전망) 공공·토목 부문 경기는 SOC 투자 증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건축 부문은 주택수요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부문의 소폭 개선) 정부의 SOC 예산 및 발전설비 건설 확대의 영향으로 2013년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액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SOC 예산 계획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주기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설비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지난 3년 간 공공·토목 부문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존재

- (민간·건축 부문의 부진) 주택시장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경기 회복세 미약에 따른 가계 유동성 제약으로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미분양주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주택 물량 문제가 상존하고,
- 경기 회복세 미흡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약화와 가계 부채 문제 지속에 따른 유동성 제약으로 건축 부문 내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건설업 전망>

(단위 : 조 원)

	2011	2012	2013(E)	
			2012년 11월 전망	2013년 6월 전망
건설기성액	91.7 (△ 1%)	88.0 (△ 4%)	92.7 (5%)	92.7 (5%)
건설수주액	95.3 (6%)	86.8 (△ 9%)	88.6 (2%)	84.2 (△ 3%)
공공	28.6 (△ 2%)	26.1 (△ 9%)	26.9 (3%)	26.4 (1%)
민간	61.8 (12%)	57.2 (△ 8%)	57.8 (1%)	54.3 (△ 5%)
토목	33.2 (△ 6%)	30.1 (△ 9%)	31.0 (3%)	30.4 (1%)
건축	62.2 (14%)	56.7 (△ 9%)	57.3 (1%)	53.9 (△ 5%)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심화, 건설업의 신성장동력 마련 노력 가속화, 새로운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심화) 해외 건설의 수익성 악화와 국내의 상반기 수주 물량 감소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건설 수요의 급감으로 해외 건설 물량에 크게 의존하던 건설업계가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지속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 미분양주택 해소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시장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주택건설 중심인 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업계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존재
 - (건설업의 신성장동력 마련 노력 가속화) 국내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 리모델링 시장 및 첨단 융합 사업 진출 등의 노력이 가속화할 전망
 - 국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도상국으로의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 국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리모델링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존 건설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첨단그린도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이저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 존재
 -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확산) 새로운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반면 정책 무용론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 4.1부동산대책이후 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계 부채 문제 등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정책 무용론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HRI**

산업별 담당 연구원

【총괄】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선】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해운】	전해영 선임연구위원 (haloween@hri.co.kr, 2072-6241)
【기계】	조규립 선임연구위원 (jogyurim@hri.co.kr, 2072-6240)
【철강】	김필수 선임연구위원 (phil7941@hri.co.kr, 2072-6238)
【석유화학】	안중기 연구위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자동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IT 제조】	백다미 연구위원 (dm100@hri.co.kr, 2072-6239)
【건설】	오준범 연구위원 (jbdevil@hri.co.kr, 2072-6247)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1.0	
대외 거래	통관 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9)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